

“영원”/영원하신 하나님

작성일 : 2010. 12. 10 (금) ~ 12 (일)

작성자 : 이수정 (부산 주민음교회, 치어)

[12월 12일 주일말씀을 읽고 선생님께서 영원에 대해 깨달으신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참 익숙한 말이었지만 깊은 의미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만큼 저도 영원에 대해 깨닫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또 다른 원인을 알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집회 기도시간에, 신앙이 많이 힘든 생명이 떠올라 그 생명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재능도 사랑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맞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자라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무와 같은 죽음의 세계이다.

그 어떤 양이던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아무 소용없다.

제 아무리 빛나는 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끼와 재능과 소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무와 같다.

내 안에서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도무지 빛을 낼 수 없다.

영원히 죽은 자와 같다.

그 기질과 끼와 재능을 키우려면

오직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

모든 생명은

오직 내 안에서만 빛을 발하며

생명을 가져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육체만 떠다니는,

정신과 영혼 죽은 자 되지 말아라.

(“예수님, 저도 선생님처럼 저도 영원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만큼 저도 깨닫고, 영원에 대해 실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또 다른 원인을 알고 싶어요.”)

영원.

영원한 것은 깊은 것이다.

영원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한 너의 것을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느냐.

(“육 포기 영 건설이라고 하신 잠언 말씀이 생각나요.”)

육체는 오직 영원만을 위해 존재한다.

영원에 눈이 어두운 자는

눈앞에 보이는 육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지 아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 존재로만 만족하고 사는 것과 같다.

단지 종이와 금속으로 된 동전

그 차원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다.

사용법을 알고,

이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음 차원의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알고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모르고 육에만 만족하고 사는 자는

더 큰 가치를 모르고

눈앞에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는 자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냐.

너희는 오직 영원을 위해 존재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 예수만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을 알아야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영원한 네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

알았다면 진정 영원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안 것은 행해서 이루는 것이다.
이제 알았으니 네 육신 모든 것은
영원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영원만을 위해 사는 것은
나 예수의 마음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 예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고
나 예수의 생각과 정신에 맞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영원의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영원의 것은 이 육계에서 행함에 따라
얻어지기도, 잃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니 육계에서 육 구원 영 구원이라는 말이다.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 이 나의 말을 깨닫고 행하며
영원만을 위해 살 때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몰라서
영원을 위해 살지 못하고,
알아도 이루지 못하며 사는 자는
영원을 얻을 수 없다.

영원은 오직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말한다.
지옥세계는 생명이 아니니 영원이라 할 수 없다.
끝없는 죽음이요,
끝없는 절망과 사망 골짜기이다.
알겠느냐.

이 육계가 귀한 것은
영원의 문제가 걸려있으니 중요한 것이다.
육계의 삶으로 인해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다음 차원의 운명이 없다면
어찌 그리 중요할 수가 있겠느냐.

나 예수는 영원히 존재하며
너희 옆에서 악과 싸워주고,
늘 생명권에 있게 해주며 내 편으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너희의 영원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를 영원히 구원시켜 함께 살기 위함이다.
더 많은 자가 생명에 속해
영원히 함께 존재해야
나 예수와 성삼위의 영원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나와 같이 영원히 존재해야
그 빛을 찬란히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 세계가
영원히 빛을 발하는 것이다.
믿지?

늘 깊은 차원의 정신에서
내게 집중하며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깊은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내게 깊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 절대 믿고 내게 와서 꼭 받아가라.

(마무리 지으시며 합봉하는 교회에게 짧게 하셨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내 계획 속에 맞게 배치할 것이다.
네 생각 버리고 대기하여라.
절대 믿는 자는 더 맞는 사명을 줄 수 있다.
알지? 믿는다.

산에서 또 깊은 대화를 하자.
안녕. 너의 주 예수가

(12월 11일 새벽에 산에서 철야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또 다른 원인은
뭘까?’ 생각할 때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영원하니 좋고, 어느 한
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신랑 삼을 수 있어서

좋고, 영원히 살 하늘나라가 있어 좋고, 영원이 있으니
희망이에요. 영원이 있으니 참 좋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네요. 그 맛을 알았어요.” 하는 기도가 마음에
감동되어 나왔습니다. 정말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꼭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 영원히 사랑
드리고 영광 드리며 살 거예요. 영원, 참 길네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영원은 깊고 깊다.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영원을 영원히 누려라.

영원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영원은 변하지 않지만 늘 새로워서

늘 마음에 기쁘이고 행복이다.

영원하다고 해서 지겨운 세계가 아니다.

변함없지만 늘 새로운 고차원의 세계이다.

육신으로는 누릴 수가 없다.

육신은 영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육은 도구일 뿐이니

영원의 세계에서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니 기쁘이고 희망인 것이다.

영원한 존재체가 되어라.

영원히 사망 속에 거하는 것은

살았다 하다 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꼭 죽은 것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한 존재체는

온전하게 갖추어져서

영원한 존재자 나 예수와

영원을 누리며 사는 존재체이다.

온전한 영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나의 나라에 거하여라.

너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히 네 옆에서 지켜주고

네가 믿을 때도, 믿지 않을 때도

사랑해주며 보살펴주고 있노라.

네 육만을 위해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아라.

(12월 12일 새벽, 산에 올라 철야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 주님의 상대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영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꼭 영원한 존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주님의 영원도 의미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습니다.)